



마음의 ‘상태’를 넘어 본성으로 (2부)

| 아소 | 오인회 편집부 인터뷰 |

아소님은 그림책에 글과 그림 그리는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팔 년 전쯤 가까운 지인의 죽음을 겪으며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실재의 세상은 어떤 것일까?’란 의문을 품고 마음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사 년쯤 되었을 때 페이스북을 통해 월인 선생님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의식에 관해 과학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실제 생활과 수행에 도움을 많이 받게 되면서 미나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유튜브에 올려주신 진심직설을 보던 중 ‘아는 것도 작용이다’라는 한 구절의 말씀을 듣고 공부 과정 중 답답했던 부분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깨어있기 강좌를 수강하고 지금은 깨어있기 마스터 과정을 공부하며 직관적으로 통찰했던 부분을 세세하게 분별하고 의식화해서 그동안 했던 공부가 실생활로 이어지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별칭으로 쓰고 있는 아소똥똥이라는 이름은 아이의 미소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오라.’는 월인 선생님의 시를 읽고 짓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매 순간 그렇게 되기를 서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편집부 네, 그러면 ‘나와 대상, 주관과 객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의식의 분열, 분별과 관련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아소 제가 요번에 세 번째 깨어있기 과정을 했는데, 전에는 ‘나와 대상이 함께 생겨난다’는 말이 뭔지를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각연습을 할 때 처음에는 잘 안됐었어요. 감각상태로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형태와 질을 빼라는데 “눈을 이렇게 초점을 안 맞게 보는 것이 감각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제가 그 용어는 낯설지만 하여튼 ‘나’와 대상이 구분이 안 되고 분리가 없는 상태는 뭔지를 알았었

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상태로 만들어서 “이것이 감각인가 보다”라고 했었는데, 요번에 갔을 때 감지를 배우면서 내 안에 느껴지는 감각이 명확해지면서 그것을 빼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그때 밖에 나가서 식물을 보라고 하셨거든요. 식물이 바람에 움직이는 것을 보라고 하셨는데, 아주 가늘게 얇은 화초가 흔들리는 걸 봤을 때 제 마음에서도 똑같이 아주 가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고, 크게 움직이는 화초를 봤을 때는 크게 움직이는 움직임이 내 안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내 안에 그 느낌이 밖에 보여지는 느낌이란 똑같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뭔가 바라볼 때 내 안에 느낌이 생겨나잖아요? 거기에서 그 느낌을 빼니까 나와 대상의 구분이 없는 감각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나’와 대상이 함께 생겨나는 것이고, 내가 사라지면, 대상이 사라지진 같이 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편집부 그렇게 같이 사라지면 어떤 ‘경험’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겠네요.

아소 네. 다만 감각적인 자극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 흔적은 있을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는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의식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무의식적 경험은 있을 것 같아요.

편집부 무의식적으로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하는...

아소 네. 신체기관 때문이에요.

편집부 신체가 느끼는 무의식적인, 어떤 아주 미세한 수준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아소 예.



편집부 아까 주체가 사라지는 체험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상황에서 도 사실은 나와 대상이 아주 미약하지만 분별은 있었던 거죠?

아소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명확해진 게, 명확하게 “이게 맞나?”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선생님께 여러 번 여쭙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사라진 것의 그림자를 본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주체가 힘을 굉장히 잃었어요. 그때까지는 주체와 동일시되어 있으면서 ‘아는 것’이 세상에 ‘꼭 차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는 어떤 것이, 그런데 그게 채반에 온 세상을 받쳐서 그 아는 작용이 다 빠져버린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이제 일상이 굉장히 평범해졌어요.

편집부 평범해졌다고요?

아소 예. 공부하기 이전에 세상을 보던 것처럼 되게 평범하게 느껴지게 되었어요. 그럴 정도로 주체가 힘을 잃으면서 저한테는 어떤 통찰이 있었는데 잠깐 필름이 끊겼다가 다시 생긴 건지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정말 공기조차 사라진 그런 상태를 체험했다고 통찰로 와 닿았거든요.

편집부 통찰로 와 닿았다? 통찰이란 것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내용의 통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소 선생님의 ‘진심직설’을 들으면서 “아는 것도 작용이다” 했을 때, 그동안 경험적으로 온 세상에 꼭 차있던 그 주체의 기능, ‘아는 그것’이 – 사실 선에서 공부를 하면서 초견성이라고 하나요? – 그것마저 없어진 거예요. 그전에 공부하던 곳에서는 그것을 알아채면 공부가 다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주체를 알았을 때 말이죠.

편집부 주체를 알았을 때?

아소 그런데 (이 비개인적인) 주체와 동일시가 돼있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지요.

편집부 주체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아소 어떤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어떤 것에 의해 알려지는 것, 그것이 깨어있기에서 말하는 주체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선생님의 진심직설 강의를 듣고 ‘아는 것도 작용이다’ 그랬을 때, 그 ‘아는 것’마저 작용 쪽으로 옮겨지면서 본체가 텅 비어졌어요. 그러면서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공기조차도 없어서 그것은 진짜 없어질 수도 없고 생겨날 수도 없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먼지 한 톨도 없고 공기도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런 통찰이 잠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주체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때까지는, 주체로 세상이 딱 차있었는데, 거기서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 말씀으로는, 중요한 것은 “머물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머물지 않으면 이미 모두 그것이다.”라고 하셨던 거 같아요.

편집부 다 그것이다? 상태에 머물지 않으면 다 그것이다?

아소 그보다는 어떤 상태에 머물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불교용어로 말씀하실 때 비상비비상,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공기조차 없이 아무것도 없는 거고, 멸진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이 다 있는 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상태에 있건 다 명칭일 뿐인 거죠. 어떤 상태가 있지 않아도 멸진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멸진이죠, 지금 있는 그대로.



중요한 것은 머물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머물지 않으면 이미 모두 그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건 그 상태가 없어지건 상관이 없어지는?

편집부 결국에 나와 대상은 함께 생겨났다가 같이 사라지는 어떤 현상이라는 거죠?

아소 네.

편집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느낀다는 것은 항상 나와 대상이 이미 생겨나있는 것이라는 것?

아소 네.

편집부 그리고 나와 대상이 생겨나 있든, 그것이 사라진 멸진정의 상태이건 그것들은 모두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소 네.

편집부 알겠습니다. '깨어있기' 수업과 오인회에 참가한 후 대인관계나 업무적인 면 등 일상의 삶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요. 있다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소 일단 일을 하는 것이 되게 수월해졌고, 에너지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무거운 일이 별로 없으니까 에너지가 여유있고 많아졌어요.

편집부 더 활력이 생기신 거네요.

아소 판단도 쉽고, 실패해도 상관없으니까요.

편집부 실패해도 상관 없으세요?

아소 네, 지금은 그냥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공부거리로 보여요.

편집부 공부거리.

아소 그냥 누구하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아, 여기서 뭘 배우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편집부 아, 그래요? 그래도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소 딱히 없어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옛날에는 ‘뭔가 꼭 해야 돼.’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재미있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해요.

편집부 아니, 지금 본인이 하시는 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요즘에 디자인 일을 한다고 하셨나요?

아소 일러스트 일을 하는데 계약한 것은 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아직 대학공부가 끝난 상태가 아니어서 대학 교육비가 들거든요. 필요한 양만큼의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해진 만큼만 해요. 돈이 더 될 거 같아도 안 해요.

편집부 미리 좀 저축해 놓으시면 좋잖아요. 노후를 위해서.

아소 글썩요, 적당한 만큼만 하고 다른 재미있는 것을 해요.

편집부 이제 재미를 많이 중시하시는구나.

아소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딱히 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요.

편집부 예전에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막연한 의무감 때문에 하기 싫어도 했다면, 요즘은 꼭 수입이 필요한 것 아니면 재미가 없으면 계약을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소 네. 그리고 마음에 짐은 좀 있어요. 제가 공부한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쓰이고자 하는. 사실 지금 일이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아니거든요.

편집부 일러스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소 일러스트 하는 일도 그렇고, 킨츠키라고 제가 깨진 그릇을 고치는 일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편집부 깨진 그릇을 수리하는 법, 그걸 엑스트라로 하고 계세요?

아소 네. 일본에서는 한때 붐이 일었다가 지금 가라앉은 상태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유행시작이라 ‘아, 이것은 사람들이 좀 배우고 싶어 하겠구나.’ 그래서 ‘한 2년 간, 저희 아들 공부할 때까지만 해야지.’ 그렇게 하고 시작한 일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일러스트 일도 그렇고 제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하나의 명분인 거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도.

편집부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아소 네. 자연스럽게 지금을 즐기다보면 그냥 나중에 그렇게 역량이 생기고 제 안에 쌓여진 게 많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 같아요.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 제가 쓰이겠지요. 그래서 지금 마스터 과정도 재미있게 하고 있고, 사람을 만나서 대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일을 대하는 게 예전보다 가벼워졌어요, 아주 중요한 것은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요.

편집부 그렇군요. 그럼 현재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좀 말씀해주세요. 이제는 가벼워져

서 중요한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소 아직도 수행에 대한 것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수행은 조금 더 전체인 쪽으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제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이 예전과 다르게 모두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모든 제 앞에 나타난 것들이 저에게 공부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계속 ‘지금에 머물며’ 지금을 풍성하게 느끼며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제 수행도 조금 조금씩 좋아지고 잘 쓰이게 되겠지요.

편집부 제 수행이라는 것은 ‘나’를 얘기하는 거죠? 주체로서의.

아소 그러니까 아직도 구분하는 것이 남아있어서 지금도, 원래 ‘나’라고 생각했던 ‘나’였다가, 전체가 되었다가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이 조그만 ‘나’만을 위해 살았던 애가 전체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제 행동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지고, 여태의 수행과정도 조금 조금씩 그런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씩 변화들이 일어나 밖으로 어떻게 작용으로 나오게 되는지 지켜보려 해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편집부 아직은 완전하게 잘 되지는 않고요?

아소 지금도 완전해요. 그런데 작용은 조금 조금씩 변하는 거 같아요.

편집부 네. 어쨌든 나의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나’라는 게 고정적으로 변함없이 존재하는 절대적인..

아소 그거는 변화가 없죠. 그거는 변화가 없이 늘 한결같이, 변화가 있을 수 없는 자리이고



편집부 그러면 그것은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신...

아소 아니, 그 상태만 아니면 그 자리에요. 상태도 그 자리이고 상태가 아닌 것도 그 자리인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미지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특정한 상태에 머물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태를 보는. 그렇게 되면 이 조그만 ‘나’에 묶여 있던 어떤 기준들이 점점 벌어지고 떨어져나가고 희석이 되면서, 조금 더 전체인 나에 가까워지는 거죠. 무언가에 머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작용이 일어날 때, 조금 더 전체에 도움... 일부러 도움을 주려는 것은 좀 아닌 거 같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 같다는 생각?

편집부 일부러 하는 건 왜 안 되나요?

아소 그냥 그때그때 일어나는 작용은 자연스럽게 변하는데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매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편집부 필요한 일은 하고, 필요 없는 일은 하지 말자고 아까 말씀하셨었는데요.

아소 그런데 전체적인 큰 그림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구체적인 어떤 것이 제 앞에 나타났을 때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있죠. 추진할 때도 ‘이것을 꼭 해야 돼’라며 예전처럼 욕심으로 하지 않고 그때 상태에 깨어 있으면서 하는 것이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 같아요.

편집부 목표가 필요할 때는 목표를 세우고 해야 하지 않나요?

아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전에는 목표를 세우고 돌진하는 것이 제 원래 성격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욕심이 발동을 걸터라구요. 그래서 현재 상황 파악을 잘 못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될까봐 조심하는 부

분이 있어요.

편집부 그 욕심만 잘 살피고 앞서가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나요?

아소 그렇죠. 그것을 저렇게 표현한 거죠. 뭔가를 향해 추구해 나가는 것이 현재에 머무르면서 하겠다는 거죠.

편집부 아소님은 깨어있기 기초와 심화를 두 번씩 들으신 건가요?

아소 세 번씩 들었어요. 한 번은 그냥 들었고 두 번은 마스터 과정 때문에 들었어요.

편집부 거기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통달하셨겠네요.

아소 그래도 매번 새로워요.

편집부 워낙 내용이 쉽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오인회 참여하고 계시죠?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걸 해보고 싶다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아소 있어요. 일단 지금 공부한 내용이 알 듯 모를 듯 스며들어 있는 편 안하고 재미있는 책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내용이 명확하면 강요 같아서, 형식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편집부 글도 잘 쓰시나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어요?

아소 잘 쓰진 않아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일은 아니거든요.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공부를 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쉽고 재미있게 접하고 이런 것이 있네 라고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기준이 발견이 되고
그 기준이 제 느낌 속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내려놓아지고 넓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래요

편집부 지금은 그런 책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책이 나오면 좋겠네요. 특별히 마음 공부한다는 생각 없이 손에 들고 읽었는데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걸 말씀하신 거죠?

아소 네. 그래서 그런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책은 별것 아닌 내용이지만 지금도 잘 팔리고 있거든요.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내가 아닌 무의식이 쓴 책이라고 해야 할까. 사람들에게 즐거움도 주지만 유익함도 주는 그런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오랫동안 생각만 했었지 아직 책을 못 내고 있어요. 이젠 좀 해봐야죠.

편집부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림도 잘 그리시니까. 이쪽도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런 분이 많이 없었어요. 대중화시키기가 어려웠어요. 깨어있기 같은 강좌는 소수의 사람만 듣잖아요. 여러 사람들에게 필요한데. 크게 통찰을 일으킨다는 것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작은 깨달음이라거나.

아소 네. 제가 시간에 관한 글을 몇 년째 쓰고 있는데, 글이 변하고 있어요. 이런 글이 어려워요.

편집부 어렵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될 순 없으니 개정판 내시면서 하세요. 시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도 많고 물리학자도 연구하는 주제인데, 말씀하신 책을 내시면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하실 일이 많겠네요. 보통 이런 질문

드리면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소 저는 공에 빠진지 몰랐는데, 처음 깨어있기 갔을 때 선생님이 제게 공에 빠졌다고 하셨어요. 그땐 무기력했어요. 별로 추구력이 없어지면서 예전에 가졌던 것이 사라지고 뭘 해야하는지 무기력했는데 공에 빠졌다고 한 다음부터 그것을 알아채고는 거기서 나오니 세상에 생겨있는 것들이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허무감이 오래 있었는데, 허무하지 않고 재미있는데요. 그것도 개념이라고 하시긴 했지만 지금은 생겨난 일들이 재미있어요.

편집부 이 공부에 있어 아직 부족한 점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신지요?

아소 부족한 점은 많고 해결은 계속 보고 있어요. 경계를 만날 때마다 아직 힘들어요.

편집부 경계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아소 기준이 발견이 되고 그 기준이 실제와 다르다는 제 느낌 속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내려놓아지고 넓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래요.

편집부 구체적 예를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소 최근에 그럴 일이 없다가, 어떤 오해로 문제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제 믿는 생각이 크니까 주의 에너지가 강해서 그 순간에는 절대로 내 기준이 틀릴 리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밖에는 못 보고 있는 거죠. 거기서 풀려나면서 여러 가지가 같이 놓아지면서 이해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한때 아디아산티 책을 좋아해서 많이 읽었는데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를 읽다가 ‘실재하는 것은 스스로 진실되다’라는 구절이 마음



에 깊이 박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의 기준으로 보면, 실재하는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선생님은 사실이 어디있어? 라고 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실재하는 것은 스스로 진실되다, 그 깊이 있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안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없고 해석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 묶여 있다면 제 해석 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두고 살펴본다면 좀 더 크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제 기준에 묶여 있어서 넓게 보지 못하게 됐다가, 그 생각에서 풀려나 보게 되니까 이해를 통해서 내려놓아지게 된 거죠. 내가 그런 기준에 휩싸여 있었구나. 그것은 선생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혜능과 신수 얘기지요. 신수가 ‘몸은 보리수 마음은 맑은 거울...’이라고 했는데 혜능은 보리수와 명경대가 어딴느냐라고 했잖아요? 제가 신수에 머물러 있던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내려놓아지면서 그 다음에 그런 경계를 만나면 제가 좀 다르게 작용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 경계가 벌어지고 허물어지게 되겠죠. 저도 혜능처럼 되지 않을까요.

편집부 지금 머물러서 하신 말씀은 아니죠? 혜능처럼 된다는 것은?

아소 네, 혜능처럼 된다는 것도 머문다고 말할 수 있죠.

편집부 함께 공부하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말씀 좀 해주세요.


아소 처음 왔을 때 정말 미내사에 선생님과 도반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자수성가하셨거든요. 형제들한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포시라운’, 경상도 사투리로 포근하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고생했는데 너희는 포근함 속에서 근심 없이 자라고 있다고, 그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을 바로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이끌어 주시는 과정이 없었어요. 늘 답답하고 뭔가 스스로

찾아야 하고 그것이 뭔지 알기 위해 온갖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책을 읽고 알았는데, 미내사에 오니까 월인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 상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바로 알아듣고 피드백을 주시고 그것도 이미 다 선생님이 분별을 해 놓으신 어떤 것 안에서 말하시니까 반갑고 놀라웠어요.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편하게 공부하시는지 알고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여기 오기 전의 선생님은, 간화선 하는 곳이었는데, 한 군데서 적어도 3, 4년은 공부해야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도를 쇼핑하고 다니는 거다, 계속 수행처를 옮기면서 여기 이것 아니네 하며 옮겨가고 하면 공부에 진전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을 믿고 꾸준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편집부 끝으로 인터뷰 소감을 한 마디 해주세요.

아소 인터뷰는 처음이라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인터뷰하는 동안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편집부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소 네, 감사합니다. (끝)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